

제8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CAAs)

참가보고서

박형연

대한공증인협회 총무이사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변호사

1. 길었던 참석 준비과정

2017. 3월 대한공증인협회 20대 집행부(협회장 남상우)가 들어섰다. 문제는 중요한 임원의 한 명인 국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원래는 15~19대 박광빈 국제이사 뒤를 이어 20대 국제이사로 내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증인협회 이사(2017년~2019년 회기, general councilor)로 선정된 분이 20대 집행부에 합류 못할 사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이사인 내가 일단, 국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국제이사를 겸하기로 하였다. 국제 업무를 할 기본 자격(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 대형 로펌근무, 영국 석사, 영국 로펌근무)은 있어 임시 국제이사가 되었지만, 내부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국제공증인협회의 활동은 크게 2010년 가입한 국제공증인협회(UINL) 활동과 그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활동이 있다. 아시아지역위원회는 현재 정회원국이 6개국(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이고, 매년 한나라씩 위원장국이 되어 총회(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한국은 2012년 김진환 협회장 때 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6차 CAAs 회의에서 다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위원장

국, 그 다음해(2018년) 개최국인 한국의 김주덕 부협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김주덕 부협회장이 올해 20대 협회장이 되었으면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서 한국이 위원장국이 되고, 내년에 6년 만에 총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남상우 협회장이 최초의 경선을 통하여 협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이사가 공식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공증인의 권익보호와 실익에 충실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20대 남상우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위원장국을 맡는 것과 그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CAAs의 현재 위원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회원국에 미리 통보하고, 최소한 1년 연기를 요청한다. 최소한 1년이 연장되면 준비하여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국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상임 이사회 결정은 위와 같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일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몫은 나의 것이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 번역기와 네이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와 회원국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최초의 경선으로 선출된 남상우 집행부는 산적한 국내업무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년 국제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개최국인 몽고가 1년 빨리하던지 아니면 다른 국가가 대신하여 달라. 타협불가능한 현실이다.” 세계 나갈 수밖에 없다.

9월 발리 총회에는 보통 협회장을 모시고, 국제이사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일단, 나 혼자 혈혈단신 참석하기로 했다. 그 동안 회의자료를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5명 이상의 국가대표가 참석하고 있었다. 8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우리의견에 대하여 일본에서 자신들은 2018년에 대신할 수 없다는 편지만 왔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대안을 내놓았다. 국제공증인협회는 3년 임기이다. 그런데 아시아지역위원회는 1년 임기이다. 3년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기에는 아시아 6개국은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시아만 예외를 둔 것이다. 우리가 19대 협회장 때 협회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도 국제공증인협회의 3년 임기 기준에 맞춘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이런 제안을 하였다.

“이번 발리회의에서 우리도 국제공증인협회처럼 3년간 위원장국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인도네시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정대로 그 다음에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장국을 맡겠다. 그렇게 되면 국제회의(총회)를 매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시아지역위원회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좋고, 내년에 갑자기 대타 위원장이 나와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제안을 발리에서 논의하자.”

사실 2020년은 우리 집행부가 계속 협회 집행부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제안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6개국 회원국에 보냈다. 사실 이런 제안을 해놓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회원국에 설명하고,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중국에서 자신들이 한국 대신에 2018년 위원장국이 되고, 중국에서 CAAs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더 기쁜 소식이 도착했다. 몽골의 편지이다. 몽골은 중국에 입장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원래 순서인 2019년에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집행부와 상의한 이후에 우리는 중국의 순서인 2020년에 의장국이 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사실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발리 총회를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2. 발리 총회의 참석

가. 회의의 장소와 일정

공식 회의는 3일(9월 6일, 7일, 8일)이다. 매년 열리던 6개국 총회(plenary conference)와 비교하여 이번에는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INI)에서 의욕적으로 투자관련 국제회의(International Seminar of the Indonesia Notary Association, 7-9 september 2017, Bali Indonesia)로 확대 개최하여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하였다. 마지막 하루(9일, 토요일)는 관광 또는 골프다. 모든 국제회의가 그런 구성이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골프 칠 여유와 마음이 아니라서 여행을 골랐다. 기본적으로 6개국 아시아 회원국에서 많은 수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나만 한국의 유일한 대표로 참석하여 사람들과 인사할 때마다 the only Korean Delegate라고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은 나를 까먹지는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6명 이상이 왔고, 10명 이상 온 나라들도 중국, 몽골과 베트남이 있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은 공증인들이 국제교류에 적극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국제공증인협회에서는 스페인 국적의 회장(Mr. José Marqueño de Llano)과 사무총장(Pedro Carrion Garcia De Parada), 사무국 이사(Elena, directrice)와 프랑스 국적의 전임 회장(Jean-Paul Decorps)와 스위스 대표(Roland Niklaus) 등이 참석을 했다.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참가 예정국)로 태국과 인도 대표도 참석을 했다. 유일한 대표로 참석을 하는 즐거움과 외로움이 공존한다.

나. 첫 번째 날(9월 6일)

발리 가는 국적기(대한항공)는 밤 12시에 현지 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할 때도 밤 12시 넘어 출발이다. 발리가 관광지라서 그곳 현지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런데 놀러가는 것이 아닌 나로서는 낮에 편하게 출발하고 낮에 도착하고 싶은데 그런 자유도 못 누리고, 4박 6일로 다녀왔다. 그래도 가면서 ‘차기 총회 개최국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디냐’ 라고 나를 위로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이륙을 하였다. 발리는 거의 20년 만에, 태어나 2번째로 가는 방문이다.

첫 날은 저녁 식사와 아시아지역위원회 6개국 대표자 회의다. 혼자 어느 나라 대표 식탁에 붙어서 식사를 할까 둘러보다가 그래도 ‘가깝고 먼 이웃’ 일본 대표단과 몽골 대표단의 일부가 앉아 있는 식탁에 합류했다. 식탁의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참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하고, 나는 스스로 깜작 놀랄 정도로 내가 몽골리안임을 실감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도 그냥 몽골 사람이었다.

식사 후 모든 회의가 그렇듯 아시아지역위원장이자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회장인 Yualita Widyadhari 여사(발음이 어렵다. 유아리따 위디아다리)의 인사말, 국제공증인협회의 회장인 Mr. José Marqueño de Llano(카탈루니아 지방, 즉 바르셀로나 출신자, 2017년~2019년 회기 회장)과 UINL 사무총장(Pedro Carrion Garcia De Parada)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말로 회의를 진행하고, 동시통역이 영어로 제공되었다. 회장들은 자국어로 연설을 하였다. 회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호세 회장과 유아리따 회장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다. UINL 대표들은 불어로 의사교환을 주로 하는 것을 보아서, 영어보다는 불어가 UINL의 공용어라는 것을 실감했다. 페드로 UINL 사무총장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것은 참 마음이 불편한데, 모든 참가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더구

나 영어를 별로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 내가 참석해 본 국제회의 중에서는 제일 자신감 있고, 부담 없는 국제회의였다.

인도네시아의 유아리타 회장이 1년간 아시아지역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재무이사(treasurer)인 일본의 Watanabe Sho(渡邊 壯)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위원장국을 할 때 돈을 좀 남겨서 그 돈을 베트남 외환법률에 따라 국제공증인협회로 보내고, 다음에 다시 인도네시아 관련 법률에 따라 송금을 받았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일본의 와다나베가 계속 재무이사를 맡아왔는데, 내년에 은퇴(일본은 70살에 공증인 은퇴)하여 검사출신의 후배 공증인인 Inaba Kazuo(稻葉 一生)를 차기 재무이사로 추천을 하였다. 재무는 일본이 계속하겠다는 의지이다. 보고업무를 마치고 제일 중요한 차기 회장 선출로 넘어갔다.

미리 메일로 의견 교환된 대로 중국이 내년(2018년) CAAs 위원장국을 맡기로 결정을 하였고, 신임 회장이 되는 중국공증인협회 회장 Hao Chiyong의 인사말과 신임 재무이사 Inaba Kazuo의 인사말이 있었다. 중국 회장은 중국말과 통역으로, 신임 재무이사는 더듬거리면서 영어로 성실하게 포부를 밝혔다. 그는 와다나베 재무이사만큼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다. 중국 회장은 딱 공무원이나 공산당원처럼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명함 교환도 못했다. 내가 비교적 유창한(?) 영어로 남상우 협회장과 대한민국 공증인협회는 국내 문제로 예정된 위원장국의 책무를 바로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 위원장국이 되어준 중국공증인협회와 이를 양해해 준 모든 회원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했다. 드디어 큰일을 하나 마쳤다.

다. 두 번째 날(9월 7일)

전날이 일종의 전야제이고, 이날이 공식적인 주된 행사 날이다. 하루 종일 회의다. 6개국 대표는 전날 등록을 했지만, 국제공증인협회에서 참석하러 온 서양 사람들, 인도네시아 공증인들이 아침부터 등록을 하고, 인도네시아 회장 환영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어제 회의장소보다는 큰 장소에서 뒤에 배석한 사람들도 늘었다. 다만, 참가국이 6개국이라서 내가 참석해본 다른 국제회의에 비해서는 ㄷ자로 둘러 앉아 회의를 하고, 각국 대표들 뒤로 다른 참가들이나 옵서버가 앉아서 구경하는 모양이라서 조금은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회장단의 준비된 인사말들을 마치고, 국제공증인협회와 아시

아지역위원회 회장단과 각국 대표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6개국 대표들이 미리 정해진 제목, 자기 나라 공증제도의 “공증의 통제와 보호”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아시아 6개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대표(Roland Niklaus)도 참석하여 발표를 했다. 나중에 보니(함께 발리관광에 참가했다) Niklaus는 공증인으로 은퇴를 하였는데 계속 국제공증인협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발리와 인도네시아를 좋아하는지 발리 전문가였다.

나는 미리 한정화 법제이사에게 부탁하여 한글로 한국공증 제도의 보호와 통제에 대한 자료를 받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PPT 파일로 만들어 발표준비를 했다(발표시간 30분). 오전에 중국, 몽골, 일본, 오후에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위스 순으로 발표를 하였다. 내가 발표한 다음에 뒤에 배석하였던 인도네시아 공증인과 태국 옵서버가 나에게 몇 개의 질문을 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한국 사업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한국 공증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여기서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다.

보통 영어자료를 읽어나가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는 PPT 파일로 만들어 간 대로 재미있게 유창하게, 별로 내용은 없지만, 발표를 하여 좋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이라 포장은 좀 잘하고, communication의 핵심을 좀 알기 때문이다. 증인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니 오해는 말기를 바란다. 압권은 왜 내 영어 이름이 Rick인지 설명을 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다. 기억에 남기려면 이런 필살기가 모국어로 하든, 외국어로 하든 필요하다. 국제회의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릭은 내가 젊을 때 좋아하던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영화 카사블랑카의 남자 주인공(험프리 보가트)의 극중 이름이다. 내가 미군부대에서 군법무관 할 때 미국 법무관들이 영어 이름을 정하라고 할 때 고심하여 결정한 이름이다. 내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 분위기를 푸는 첫인사로 자주 사용하는 나에게는 진부한 내용이다. 발표를 마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할 때 이름 이야기로 접근하는 대표가 몇 명 있었다. 다들 대화하고 싶은데 주제가 마땅치 않은데 기억나는 발표 내용(?)은 좋은 이야깃거리가 된다. 전날보다는 사람들과 조금 친해졌지만, 고아처럼 혼자 모국어의 의미 없는 곳에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이다. 국제이사로 오래 활동하신 박광빈 전 이사님의 안부를 묻는 분이 몇 명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간단하게 자국 공증인제도에 대하여 소개하는 발표(10분)를 한다길

래 전임 집행부에서 만든 KNA(Korean Notaries Association) 영문소개 자료에 회장님 인사말 부분과 집행부 소개 부분만 지금 집행부로 교체하여 PDF 자료를 만들어 갔다. 두 자료는 지금까지 간혹 한국의 공증인제도를 문의하는 외국 공증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4시쯤 발표를 마치고, 지난밤 6개국 대표가 결의한 사항(resolution)을 확인하고, 각국 대표가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결의 내용은 고칠 것이 없었는데 이름들 표기가 잘못 되어 몇 번이나 고쳤다. 외국 이름들은 쓰기도, 부르기도 참 어렵다.

저녁에는 교류의 밤 행사가 있었다. 설마 이 야외무대에서 한국의 공증인협회를 소개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비디오 자료를 만들어 와서 틀었다. 무척 인상적이었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이늘어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홍보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준비했냐고 묻길래, “다음에!”라고 크게 외쳤다. 우리 공증인협회도 비디오(동영상)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행사 내용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은 일본 대표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만의 합창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이 모임에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들끼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부러운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인도네시아에는 공증인 중에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인도네시아 공증인협회 회장도 여자, 부회장도 여자, 간사들도 여자 비율이 높더니,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았다. 환영행사에 댄스와 합창 팀이 나왔는데 모두 공증인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1만7천 명의 공증인이 있고, 발리에만 약 500명의 공증인이 있다. 숫자가 많으니 행사가 북적이다. 각국 대표들은 무대 앞에 VIP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고, 뷔페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무척 많은 사람들이 각국 대표 뒤쪽에 앉거나 서서 공연 등 행사를 참관했는데, 그 다음날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참석한 인도네시아 공증인들이었다. 역시 우리가 속된 말로 쪽수라고 칭하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도 발리 지사, 발리 공증인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 세 번째 날(국제세미나, 9월8일)

이날은 인도네시아 공증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

ACTUALIZING EASE OF DOING BUSINESS: OPPORTUNITY, CHALLENGE AND ROLE OF NOTARY AND OTHER LEGAL PROFESSIONS IN THE IMPLEMENTATION)

행사를 하루 종일했다. 이 세미나에 1,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공증인들이 등록을 하였고, 대통령,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까지 참석을 하였다. 왜 농림부장관이 축사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물어보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처럼 법원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과 등기공무원(많은 공증인이 PPAT라는 land officer를 겸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부인도 공증인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솔직히 나는 이날 세미나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일한 한국 대표로서 예의상 등록(250달러가 참가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세미나 자료만 챙기고, 6개국 대표와 국제공증인협회 간부(회장과 사무총장, 2~3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세미나가 시작하자 피곤하다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인도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발리 맥주를 마셨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지금 이 리포트를 쓰면서 그때 받은 자료를 살펴본다. 마치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관여하는 투자관련 국제세미나 자료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증인의 역할이 경제활동에 있어 상당히 넓고, 깊게 관여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 마지막 날(관광, 9월 9일)

네 번째 날은, 관광과 골프인데 골프를 치는 아시아지역위원회 임원들과 국제공증인협회 임원들은 그곳에 참석한 모양이다. 아마 내가 CAAs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이사였으면 골프를 쳤을 것 같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공식모임으로 보였다. 국제공증인협회 임원들은 거의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다. 많은 일본 대표들은 골프를 싱글치는 한명만 제외하고, 관광에 참석하였고, 10명 이상 참석한 베트남 대표들과 몽골 대표들은 자신들끼리 관광이나 행사를 한 모양이다. 거의 대부분의 방문지가 힌두교 사원이라서 종교투어인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인 발리(발리를 제외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대다수임)에는 힌두사원이 매력적이었다. 모든 집들과 모든 마을이 사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힌두사원이 세워져있었다. 북쪽 호숫가의 사원, 바닷가의 사원들은 무척 매력적이었다. 임무를 잘 완수한 것 같아서 마음 편하

게 관광을 즐겼다. 저녁은 좋은 식당에서 우붓(발리 중부지방)의 공증인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하였다. 여기도 밤에는 차가 막혔고, 호텔에 돌아와 짐을 챙겨 공항을 향했다. 밤 12시가 넘어서 출발하니 시간은 충분했다.

3. 결 론(국제공증인협회 활동을 어찌할 것인가)

20대 남상우 집행부가 꾸러지고, 국제이사가 공식인 상태에서 국제공증인협회 활동을 어찌할 것인지 회의를 할 때 나 역시 집행부 몇 사람의 잔치로 그치고, 비용만 많이 드는 국제활동을 최소화 하자는 것에 찬성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연히 임시 국제이사가 되어 총무이사 일보다는 국제이사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원모, 박광빈 전임 이사님들이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하고, 한국 공증인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자료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한발 물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면, 과연 몇 명의 공증인이 국제공증인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임시 국제이사로서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2020년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국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을 개인 의견으로 밝히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고 한다.

일단, 부협회장님 한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국제위원회를 꾸려야 하겠다. 이 국제위원회는 구체적인 당면 목적이 있다.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이 202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의 위원장국이 되어 각종 국제공증인협회 활동에 아시아를 대표하여 참석하여야 하고, 2020년 제11차 아시아지역위원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런 당면 목적을 무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명의 임원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공증인들 중에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받아 정보를 공유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리 3년 후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몇 년 전 박광빈 전임 이사님의 수기에도 나온다. 생각은 다들 비슷하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이 글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국제업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김창호 국장에게 감사하다는 것이다. 처음하는 일이라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잡아주었다. 내가 임무를 무사히 잘 수행하는 것은 그의 덕분이다. 협회의 보배이다. 